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인성상실의 문제 제시와 인성회복의 대안을 강구해 본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내일 종강 오후 2시, 강남 YMCA대강당에서

지난 9월 4일에 개강하여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 온 제 8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내일(6일) 오후 2시,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종강예배를 드린다.

오늘날 파괴된 인성회복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요, 그 대안을 교회가 제시해야만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제 8학기 세미나는 이종윤 목사가 제 1교시 로마서 강해를 통해 아담 안에서 상실한 인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새 사람됨 모습을 계시한 로마서 7장 ~ 8장을 주제에 맞추어 심도있게 강해하는 법을

강의하였으며, 제 2교시는 인성의 문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신앙을 가진 국내의 석학들의 특강을 통해 인성문제와 회복의 대안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였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번 학기 등록자는 714명이며, 지금까지 연인원은 5512명이다.

오늘 네 학기를 수강하고 수료하는 목회자는 총 100명으로, 이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회원이 된다.

오늘 찬양예배 시 70인전도단 임명식

비전 2000운동에 즈음하여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한 70인전도단 훈련이 있었다. 전도위원회와 비전 2000운동 본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지난 23일(화)과 24일(수), 30일(화)과 31일(수) 모두 4차에 걸쳐 훈련 받은 전도

단원과 28일(토)에 일일 집중교육에 참가한 전도단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오늘 수료를 하는 전도단원에게는 70인 전도단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며 전도활동과 매월 1인 이상을 전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건축부지 사용 허가받아

교회 건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까지 3차 중도금 2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지불하였다. 남은 50억원은 앞으로 2년 반동안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사용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장: 김선도목사)으로부터 이미 받았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 중 세 명이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건설 세계 팀 역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기본 설계가 나오면 교회의 공청회를 거쳐 보완하여 설계를 확정케 된다.

한편 종교부지로 되어있는 대지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매매허가서까지 취득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다른 허가를 받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건축이 시작될 전망이다.

모세선교회 야외수련회

모세선교회(회장: 김일용 집사)에서는 지난 4일, 충북 단양에서 추계 야외의 수련회를 가졌다.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생의 만추기를 맞이한 30여 명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신 사명을 확인하였다.

권사회 가을수련회

권사회(회장: 양숙란 권사)에서는 오는 16일과 17일, 1박 2일간의 가을수련회를 개최한다. 권사들은 비전 2000운동 7대 기도제목과 특별히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장년부, 요한서신 공부

장년부는 오늘부터 김영한 박사(협동목사, 숭실대 교수)를 지도목사로 모시고 요한서신을 공부한다. 그간 우리교회의 대학부를 지도해온 김목사는 서울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철학과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년부, 헌혈운동

-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

청년회(회장: 정규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운동을 편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오는 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앞에서 행해진다.

헌혈에 참가하려면 1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남자인 경우 50Kg, 여자인 경우 45Kg이상의 체중이어야 하며 간단한 검진(혈압, 맥박, 혈액비중)에 통과하여야 한다. 병이 있거나 감기약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헌혈할 수 없다.

이번 헌혈은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헌혈 이후 약 7개월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온 교회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전 2000 운동 - 초청 찬양집회 「그나라 2000」, 지난 28일(토)에 있었던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젊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였다.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집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계속 된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씨름

(32장 22 - 32절)

이종운 목사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압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는 공포를 자아내기는 하지만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과 적대관계가 되었고 에서를 만나는 심경도 마치 적을 대하는 것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비하게 그를 보살피셨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압복강에서의 경험은 그를 놀라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해 보았는가요? 정말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나요?

1. 홀로 두려워하는 야곱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도 생애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적개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도 야곱은 뇌물을 보내는 등 혹시 닥칠지도 모를 위협에 대비하여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미 보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압복강에서 어찌면 처음으로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 천사와 씨름한 야곱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창세기 34장 24절에 의하면 '한 사람' 이라고 나타나 있으나 호세아서에서는 이를 천사로 주석하고 있습니다(호12:4). 보통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르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창18장).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성육신(先成肉身, pre-incarnation)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결국에 가서는 축복해 주실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이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는 야곱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도울 자 없고, 무가치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연약하다고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도 제 길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은 매우 격렬한 경기여서 6분의 씨름시합이 45분의 축구시합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새 싸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제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아마도 오기를 부리며 온 밤을 버텼을 것입니다. 이것의 죄의 세력입니다. 죄는 매달립니다. 포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시거나 죄의 권세를 떨하십니다.

자기 의지대로 이기려던 야곱은 결국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지혜있는 자라면 가급적 빨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3. 붙잡는 야곱

두려워하는 야곱,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이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과 방법으로 전력을 다해 씨름하던 그의 힘은 무너졌고 도움과 축복을 받기 위해 이제는 붙잡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절름발이가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가 자기를 친 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동정을 받아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길을 막고 있는 이는 다름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 뱀엘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항거하지 못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워하던 가나안은 하나님께 항복하

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항복함이 없이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4. 앞으로 나간 야곱

절편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야곱이 '속이는 자' 임을 고백케 합니다(27절).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뜻이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아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잃은 자였습니다. 압복강가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이긴 자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부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절름발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에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악할 때, 그때가 곧 강한 때입니다.

✦ 순례자 컬럼 ✦

"애국하는 자세"

애국은 특별한 몇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나 전매특허품이 아니다. 애국을 호신용 무기로 삼아서도 안되지만 애국을 빙자하여 보복 행위를 시행해서도 안된다.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 자기 한 사람만의 이해에 몰두하지 않고 언제나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국가의 번영과 겨레의 공동 이익에 직결되는 처신을 하는 것이다.

참된 애국은 내 나라만의 번영이 아니라 다른 나라 또는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까지 고려하고 진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가졌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는 것이다.

"주여 애국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 체험 간증

“예배당 건축 첫 삽을 뜨기 전에”

하영수 (집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건축이 바로 앞에 다가왔고 우리의 손으로 건축하게 된 새 예배당은 우리가 사용할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20여년 간 집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여러 교회당을 맡아서 건축하기도 하였고 교회건축위원으로 참여한 바도 있었습니다. 작은 체험을 성도들과 나누기에 앞서, 경험보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믿는 자가 바른 체험을 하는 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당 건축에는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의 일에 약간의 잡음은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마치 전쟁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월남전이나 수색대 최전선 전투병으로 참가했을 때의 제 체험을 돌이켜 보면, 전쟁터에서는 이런 저런 의견다툼이 없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물론이고 더디게 복종하는 것

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들겨 앞으로’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해야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방해하고 일을 지연시키는 사람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크게 하자, 작게 하자, 누가 어떻더라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이들이 불행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물결같은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결국은 증폭되어 교회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 빠져 회복을 어렵게 되는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삼가야겠고, 혹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동조하지 말 것이며, 될 수 있으면 듣지도 말 것이거니와 자기 자신부터 온 몸을 불사르기에 충분한 힘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임에 틀림없지만 행여 골방에서라도 탄식하거나 껄속말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 사탄이

보고, 듣고, 지붕 위에서 외쳐댁니다.

성전의모습은 기술자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 다. 모세에게 성막 모양가르쳐 주셨을 때, 브살렐은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당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기도의 자연스런 열매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가보다 얼마나 남았는가를 셈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성의없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엽전 두 렵돈처럼 감사와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며,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를 바친 소년처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당 짓기 위해 눈물 뿌리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건축의 기초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 건축 기공의 첫 삽을 뜨기 전, 먼저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자신과의 평화,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만 보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예배당은 든든히 지어져 갈 것입니다.

■ 목회자세미나를 수료하면서

동문된 자부심과 긍지로...

나 창수 목사 (전남 무안군 순복음 송죽교회)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전형적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세미나가 너무나 큰 유익과 도전이 되었기에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세미나 기간만 되면 월요일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많은 배움 중에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성도님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프로임에 틀림없습니다! 서비스 시대, 전문화 시대라는 현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서비스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 그 일상분란한 봉사와 헌신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은 한주간 내내 저의 목회현장에서 아른거려 저도 조금이라도 더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폐해져가는 농촌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재창조하는 밀알의 모습으로 섬기는 일, 여러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이번에 수료하면, 이제 저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이 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배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 제 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회복의 하나님께 찬양!

이근석 전도사 (전북 무안군 무안교회)

지난 87년 제 아내의 병이 현대의학으로는 규명도,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아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만 당하는 어려움 같았으나 치료와 능력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금년 봄부터 저의 체력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두려움에 빠져 다시 한 번 절망에 처하고 그냥 주저 앉고 싶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교회에 출석하시는 친척이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소개해 주시고 직접 등록까지 해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배울 때마다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어리석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사 하는 기도와 함께 마음으로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은 남아 있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더 크게 쓰심인 줄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절망중에서 소생케 하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 헌신하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항상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생명을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게재합니다.)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이영자	김덕명 윤선영 김덕양 이기배 김철산 김덕선	홍재식 김복희 임태숙 황규숙 최형열 김광철 김능호 신은심	김대용 오도식	이복인 조혜진 조태권 유오상 양승걸 서기종	
이봉규 권윤경	이미경 이옥경 이유배 박근순	박순봉 오명숙 이용선 김지연	김정애	이문규 황영숙 박용하 박원규 신홍섭 전기환	
차복녀	조연성 안동연	이승선 김지연	김정애	안남선 송인선 이익상 정해남 오광호 오춘열	
조정식	조명구 오석희 김영복	김숙자 김영기 윤연순 하태성	김정애	조남상 박일선 이종길 홍성근 홍현우 박진술	
심재을	허규택 심재수 조은순	김명숙 이승자 김순경 양미영	김정애	최국상 오희교 정판식 최영철 박병희	
무명	박유선 박유신 박건영	최순애 이두연 김은숙 이정자	김인순 오충례	이중재 조용남 이정아 선형기 양이철 장철	
김인숙	유철수 이재경 박선희	이하나	이우현 나중영	남미희	
강종찬	김상희 최선기 최규식	허인숙 이길호 박정식 박용민	이우현 나중영	남미희	
김종자	이복자 이호열 고인순 박준형	이규립 최인숙 김찬진	김대영 조윤경 조장원 김미숙 주숙자 태양		
김정현	최호순 왕권자				

■ 레이다

초등부 찬양대의 기쁨

초등부는 지난주일(10월 29일), 성경퀴즈대회를 통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활기에 넘쳐 있다. 초등부의 가장 큰 자랑은 오케스트라(?)까지 구성된 찬양대. 4일(토)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찬양발표회에 참가하는가 하면, 비전 2000 운동 기간 중에 해마다 여는 오는 18일(토)에 있을 어린이 초창 음악예배를 준비하면서 신앙과 음악 실력이 부쩍 자랐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J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신디사이저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초등부 찬양대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11월 19일은 전교인 만남의 주일!
잃은 양을 찾아 나섭시다.



●... 당회원들은 교회당 건축의 대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오늘의 건축헌금작정을 앞두고 지난 3일(금) 십야기도회 후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들어가 철야기도회를 가졌으며, 4일(토)에는 일일 금식일로 정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보냈다. 백성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모범을 보이시는 장로님들께 존경과 감사로...

●...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우리교회 건축헌금에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 김치 동문회장 정경화 목사(백운교회)를 비롯한 동문회 임원들은 6일(월) 제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종강예배 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 예배당 신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민족교회의 한 몸된 교회관을 확인하며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한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와지도록 부단히 기도하며 강단의 갱신이 곧 한국교회의 갱신이라 믿고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던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며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재다짐하고 있다.

■ 故 유윤진 장로를 추모하면서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호탕하면서도 예민하시고, 뜨거우면서도 냉철하시던 유윤진 장로님을 그리워하는 이가 어찌 저 뿐이겠습니까? 서울교회가 설 때에 당신의 기도소리는 지금도 우리들 마음 속에 쟁쟁히 울리고 있으며 당신의 너털 웃음소리는 아직도 우리 컷전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사이에선 '떡 있는 곳에 유윤진이 있다더라' 할만큼 떡을 좋아하시던 장로님은 떡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도간의 화평을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즐겁게 하려하신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선 근엄하신 교수요, 학장님으로 덕망과 학식을 쌓으시면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신 인자하신 장로님이요, 목사인 저에겐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유 장로님!

서울교회 창립4주년을 앞두고 그 때 일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당신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교회당 터를 하나님께서 최근 우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연구실에서 몇 주일간 제자들과 작업을 하며 그려다주신 『내가 바라는 서울교회당』조감도는 아직도 제 방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쯤 누구보다도 바쁘셔야 할 장로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리운 정 사뭇 더해집니다.

유 장로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던 이영자 권사님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세하나 홀어지지 않으신 채 당신의 자리를 메꾸어주고 계시며 당신이 기도하신대로 태서, 은경, 혜란, 세라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의젓하게 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만 지으면 전에 만든 돌성경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겠으니 없어진 것 안타깝다고 괴로워하시라며 제게 위로를 해주신 언장로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돌을 세워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우리도 새 예배당 지으면 장로님 약속대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임을 후손에게 전할 돌 성경 만들어 예배당 뜰에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4년 11월 10일! 그 날은 우리에게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던 성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우리를 떠나셨지만 눈물겹도록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종이셨기에 우리는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목사

■ 목회자 단신 ■

- * 한국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운 목사는 월례 기도회 및 세미나를 11월 10일 한기총에서 주재한다.
- * 서울강남노회 제 17차 정기회가 11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 교우동정 ■

- * 박홍복 성도·이강인 집사(11교구, 이강인 집사 동생)은 지난 3일, 송파에 『박가네 철판구이집』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ILD FM 93.3MHz) 「늘푸른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믿음과 기도로 예배당을 건축해 가도록
2.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3. 비전 2000운동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4.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